

장흥군, 인구감소 대책 '총력전'

조직개편 통해 담당급 1명 비롯 총 3명 인구정책담당 신설

1단계 목표 '인구 4만 지키기'...기업·도시민 유치 등 과제

장흥군이 인구감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둘째 구역에 나섰다.

장흥군은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급 1명을 비롯, 총 3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첫 회의를 갖고, 군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군은 인구감소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1단계 추진 목표를 '인구 4

만 지키기'로 내걸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4만 8천 명으로 인구 4만 선을 이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 대도시 진출 등을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지키기 3부 조성, 기업유치 도시민 유치 기반 조성, 출산율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의 현황을 파악해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등참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 산단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이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군이 취업 희망자와 기업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로하스티운을 중심으로 페저한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도시민을 유치 할 수 있는 정착 기반도 확고히 한다.

농어촌 빈집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귀

농·귀촌 희망자에게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산축하 용품 전달, 육아 용품 대여, 모자보건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행복 출산 월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디지털 서비스, 신생아 및 출산아 양육지원금 등의 신청을 일원화해 삼모들의 편의도 높였다.

김성 군수는 "인구는 지방자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인구 4만을 배수진으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인구증가 시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관광의 대표적 콘텐츠 '여수밤바다' 경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종포해양공원 일원 등 개발 계획이 추진된다고 12일 여수시는 밝혔다.

여수밤바다, 도시계획으로 '체계적' 개발

여수시 관광의 대표적 콘텐츠로 떠오른 '여수밤바다' 경관에 대한 체계적 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12일 여수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포해양공원 일원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공원~남산공원~진남관~자산공원 축은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의 관리구역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

여수시,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정부 추진 중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연계

건축물 배치 및 색채계획 등을 법제화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와 동하게 전지훈련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해변에만 부여하는 피얼릿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아 세계적인 해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올해는 30여억 원을 투입해 우수지, 중앙 진입로, 공공시설 등을 정비해 피서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와 동하게 전지훈련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에 오토캠핑장과 미니축구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신시설의 펜션단지와 실속형 사탕의 텐트 등 숙박업소도 잘 갖춰져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안누리길로 지정한 신지명사십리길이 신지대교부터 동고리까지 28km에 걸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고산 윤선도 유적지로 유명한 보길도와 슬로서티 힐링의 섬 청산도, 국내 유일의 난대림으로 조성된 완도수목원 등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즐길 수 있다.

안전한 깨끗한 도래사장, 시원한 송림, 편리한 주변시설을 두루 갖춘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는 완도의 자랑인 전복, 명품광어 등 최고의 맛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무안군, 비브리오페열증 감염주의 당부

무안군 보건소는 기온 및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에 발생이 급증하는 비브리오페열증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페열증은 비브리오페열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폐열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멀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을 비롯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비브리오페열증은 사람 간 전파

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예방수칙 준수 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 생식은 피하고 충분히 익혀먹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나 칼 등을 소독 후 사용하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바닷물에 접촉 후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부위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특히, 만성간염, 간경화, 긴장 등으로 간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면역저하자 환자 등에게서 발생하면 치사율이 50%를 상회할 만큼 매우 위험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로 피서가자"…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고운 모래·오토캠핑장·최신시설 펜션 등 잘 갖춰져



소로도 인기를 끌며 연중 평균 1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다.

특히, 뜨겁고 부드러운 모래로 하는 모래찜질은 노인들의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변의 갯바위는 풀과 농어, 광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낚시터로도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공기중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도시 보다 50배 많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10리(3.8km)가 뻗어 있는 백사장은 빛모래가 파도에 씻기며 나는 소리가 멀리 심리까지 들린다 하여 명사십리 불린다.

폭 150m 길이 3,800m에 달하는 한쪽의 그림 같은 백사장은 연중 가족, 연인은 물론, 대기업 하계휴양

장을 찾고 있다.

지역공공·미래·장관직원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씨원은 장

흥비아이오식품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장흥표고산업육성사업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김종민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보건복지부 | 출판자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